

제4장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의 중요성과 방법

- 한자어 접두사를 중심으로

김위선

이탈리아 나폴리 오리엔탈레 국립대학교
University of Naples "L'Orientale"

1. 들어가며

어떤 언어로든 자기 생각을 유창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풍부한 어휘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국어도 예외는 아니며,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려면 한자어로 된 어휘를 많이 알아야 한다. 특히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자어로 된 어휘를 체계적으로 교수/학습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전공 용어들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어 전용 정책 때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에서 공교육으로서 한문(한자) 교육은 많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공교육을 벗어난 영역에서 한문(한자) 교육은 공교육의 공백을 메우며 오히려 더 활성화되었다.¹ 이는 한자어가 한국 어휘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한문(한자) 교육이 공교육에서 설 자리는 잃었을지언정 1969년 ‘한국어문교육연구회’가 설립 당시 표방했던 “국어론 제대로 이해하여 수준 높은 국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어 안의 한자 어휘 학습이 필수적”²이라는 본질은 간과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³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1997년 10월 26일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이 처음 실시될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은 크게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유는 한국어 교육이 회화 교육 위주로 진행되어 굳이 한자까지 공부하

¹ 김애영, 윤지영. 2011. 한국의 한자 교육 현황과 제언. **외국학연구**. 제17집. pp. 31-44를 보면 한글 창제 이후 한국의 문자 정책 및 1948년 ‘한글 전용법’ 제정 이후 오늘날까지 한자 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요약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² 위의 논문, p. 43에서 재인용.

³ 한국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와 함께 한자 문화권에 속한다. 문자 체계로서 한자는 중국 대륙에서 발명, 사용된 이래 주변 국가들에 전파되어 각 지역의 음운 환경에 맞게 읽히고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한자 문화권에 속한 나라의 경우라면 한자를 읽는 음운 방식은 다르더라도 한자는 그 지역의 언어 문화권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15세기 우리 고유의 문자 체계가 발명된 이후에도 한자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문화생활의 차원에서 끊임없이 사용되었다. 이렇듯 우리의 역사와 지나간 세월을 함께 한 한자는 한국의 문자 생활 및 언어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한자어가 한국 어휘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서들을 통해 증명되었다(윤재민. 201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한자 교육. **한문교육연구**. Vol. 38. pp. 7-12).

여 풍부한 어휘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 한국어로 유창하게 말하고 한국어로 쓰여진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이해하려면 한자어 교육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어 교육자들 사이에도 인식되어 학습자를 한자권과 비한자권으로 분류, 각 집단에 적합한 교육용 기본 한자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한자 교수법과 교재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졌다.⁴ 또한 세기 전환기 이후 일기 시작한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목적과 동기도 다양해졌다. 동시에 일상생활이나 관광에서 사용하는 수준을 벗어나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들도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한자권에 속하는 유럽 대륙 내에서도 초급 학습자와 중·고급 학습자를 구분하여 한자어 교수법과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욱이 고급 단계로 올라갈수록 교육용 어휘나 전문 용어는 대부분 한자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⁵

이러한 모든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제 한국어 교육자들은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은 필수 과정이며, 한자어로 된 한국어 어휘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필자는 한자어로 된 접사를 어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자어 접사를 활용하는 일은 하나의 한자를 배우고 나면 그 글자가 포함된 단어를 배울 때 의미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는 한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⁶ 보통 접사라고 하면 다시 접두사와 접미사로 구분되는데, 지면 관계상 이 두 가지를 모두 고찰하기는 힘들어 본고에서는 한자어 접두사에 집중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배워야 하는 한자 어휘를 선정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크게 두 가지 기준이 공통적이다. 즉,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와 조어력이 높은 한자가 주요 선정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한자를 배우고 나면 한자의 뜻, 즉 새김을 이해함으로써 뇌의 연상 작용에 의해 몰랐던 단어라 하더라도 의미를 추측할 수 있으며 그렇게 알게 된 한자어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연관 지어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접두사로 사용되고, 활발하게 조어 생산성을 보이는 한자들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 본다. 한자어 접두사를 한 번 공부해 두면 어원을 공부한 것과도 같기 때문에 처음 보는 단어라 하더라도 어기의 뜻만 알고 있으면 굳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도 문맥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자신이 직접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자어 접두사에도 유의 관계나 대립 관계를 이루는 한자들이 있는데, 이런 관계를 활용한다면 학습자들의 인지적 능력을 이용한 효율적인 어휘 학습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필자의 생각은 표의어에 해당하는 한자의 특성을 고

⁴ 정승혜. 1997. 外國人을 위한 國語 漢字 敎育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김지형. 2003.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 교수법-비한자권 외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국어어문학회**. 27. pp. 343-358; 윤재민. 201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한자 교육. **한문교육연구**. Vol. 38. pp. 5-19. 한자 문화권 학습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한자의 발음과 독법이 나라마다 다르고, 한자의 자형도 달리 사용되는 예가 많으며, 동일한 한자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의미와 기능이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한자어 학습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장익. 2007. 중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 한자어 교육에 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석사). pp. 14-17).

⁵ 윤재민 교수 역시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 한자 교육은 “한국의 수준 높은 문화 및 학문 전공 언어 교육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윤재민. 2012. 앞의 논문. pp. 12-15).

⁶ 표의 문자인 한자는 글자 하나마다 뜻을 가지고 있어 표음 문자인 한글보다 훨씬 능률적으로 어휘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였다(정승혜. 1997. 앞의 논문. p. 3; 장익. 2007. 앞의 논문. pp. 9-10; 정서영. 2008. 고급 단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어휘 교수 학습 전략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석사). p. 3.

려하여 연관 관계에 있는 한자어들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무엇보다 먼저, 국어 문법에서 얘기하는 접두 파생법과 관형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접두사가 붙을 때 한국어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현상과 원칙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파생어를 이해하는 기본 지식이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한자어 접두사가 여기에 결합할 때는 고유어 접두사와 어떤 유사점 및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자어 접두사와 관형사는 쉽게 혼동되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 번 학습한 한자어 접두사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이해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런 다음 한자어 접두사의 의미를 고려하여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크게 아홉 가지로 나누어 한국어 어휘 생성에 자주 사용되는 한자어 접두사를 분류,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이 한자들을 활용하여 한국어 어휘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필자가 생각해 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자어 접두 파생법

파생어는 실질형태소에 해당하는 어근에 형식형태소인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 형성된 단어를 지칭한다. 국어의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기능은 없고,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는 한정적 기능만 띠고 있다. 그리고 접두 파생법에 의해 형성되는 품사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가 있다.⁷ 하지만 한자어 접두사에는 이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한자어 접두사 중 지배적 기능을 가지는 접두사는 일부 부정 접두사군이다. 즉, ‘反, 無, 未, 不, 非’ 등은 고유어 접두사나 다른 한자어 접두사와는 달리 동사적 특성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통해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再	결과를 승인하다.
		결과를 재승인하다.
2	不	그의 판단은 *합리하다.
		그의 판단은 불합리하다.
3	無	살인자의 행동은 *자비하다.
		살인자의 행동은 무자비하다.

⁷ 국어의 접두사처럼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기능이 없는 한정적 접사에 의한 파생법을 어휘적 파생법(lexical derivation)이라 한다. 한편, 국어의 접미사는 접두사와는 달리 한정적 기능뿐 아니라 지배적 기능도 띠고 있다. 즉 접사가 붙음으로써 품사를 바꾸거나 통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접사에 의한 파생법을 통사적 파생법(syntactic derivation)이라 한다. (남기심, 고영근 외 공저. 2019. **새로 쓴 표준국어 문법론**. 한국문화사. pp. 217-226).

4	未	토지를 개척하다.
		토지를 *미개척하다.
5	反	의무를 해소하는 데 작용하다.
		의무를 해소하는 데 *반작용하다.
6	非	굳건한 정신으로 무장하다.
		굳건한 정신으로 *비무장하다.

보통은 1번의 접두사 ‘재(再)’와 같이 접두사가 붙어도 통사적 기능이 달라지지 않고 서술의 기능을 비슷하게 수행한다. 하지만 2번과 3번의 경우처럼 한자어 접두사가 붙어서 이전에는 없던 서술의 기능을 지니게 되고, 4번에서 6번까지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자어 접두사가 붙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서술의 기능을 상실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일부 한자어 접두사가 통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한자어 명사는 보통 파생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여 서술어화하지만 일정한 환경이 되면 어근 분리 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재발견하다’가 ‘재발견을 하다’로 쉽게 바뀔 수 있다. 그렇지만 부정 접두사가 붙어 이루어진 명사에 ‘-하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불완전하다’는 *‘불완전을 하다’로 사용하기 힘들고, ‘미완성하다’가 *‘미완성을 하다’로 바뀌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는 사실에서도 부정 한자어 접두사는 지배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국어 접두사 파생법과 비교했을 때 한자어 접두사가 가지는 다른 차이점은 한자어 접두사에 의해 형성되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한자어 접두사와 결합한 파생어는 ‘~하다’, ‘~스럽다’ 혹은 ‘~적(적)’과 같은 접미사와 결합한 다음에야 문장에서 통사적 기능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한자어 접두사를 살펴보면 기억해 두면 좋은 점은 한자어가 만들어질 때는 고유어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음운적 환경에 놓여도 ‘ㄹ’ 탈락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보통 파생어나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자음 ‘ㄴ, ㄷ, ㅅ, ㅈ’ 앞에서는 받침 ‘ㄹ’이 탈락하지만 한자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물(沒) + 지각(知覺) = 물지각(*모지각)이나 물질(物質) + 적(的) = 물질적(*물지적)에서 보는 것처럼 한자의 원래 음가를 그대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ㅈ’은 ‘ㄷ’이나 ‘ㅈ’으로 시작되는 명사 어기 앞에서는 ‘ㄹ’이 탈락하여 ‘부’로 읽히며 의미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공부한다면 단순히 어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발음하고 올바르게 문장을 쓸 수 있을 것이다.

3. 한자어 접두사와 관형사

접두사란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접두사를 규정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며, 특히 한자어 자체가 어근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자어 접두사의 한계를 정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⁸ 무엇보다 접두사는 관형사와 형태적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교수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잠시 관형사와 접두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서도 접두사는 관형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접두사와 관형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⁹ 첫 번째 기준은 ‘형태적 분리성’으로 “선행 성분과 어기 사이에 다른 성분의 개재가 불가능하면 접두사이다”. 한자어 ‘非’가 접두사로 쓰인 ‘비무장(非武裝)’을 예로 들면, 접두사 ‘비’와 어기 ‘무장’ 사이에는 다른 단어나 조사가 삽입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비’는 접두사이다. 두 번째는 ‘분포상의 제약’으로 “후행하는 어기에 대한 제약이 크면 접두사이다.”라고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당(當)은 친족 관계에서 ‘사촌’ 또는 ‘오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여 ‘당숙모/당고모’와 같은 단어를 생성하는데, 여기서 ‘당’이라는 접두사가 없는 단어 ‘숙모’는 아버지 동생의 아내를 일컫는 명사지만 ‘당숙모’는 아버지 사촌 형제의 아내를 가리키는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를 생성하기 때문에 여기서 ‘당’은 접두사이다. 한편 ‘當’이 관형사로 쓰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 열차는 약 5분 후에 출발할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당’은 ‘바로 이’의 뜻으로 ‘열차’라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이유는 ‘당’이라는 관형사가 없다 하더라도 문장은 성립되며 ‘이’나 ‘그’와 같은 지시 관형사로 대치하여 쓸 수도 있으므로 뒤따라오는 어기를 제약하는 정도가 약하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관형사로만 처리하는 한자가 있는데, 아래 여섯 개의 한자를 들고 있다.

- a. 각(各): ‘날날의’ → 각 가정, 각 개인, 각 학교, 각 지방
- b. 당(當): ‘그’, ‘바로 그’, ‘이’, ‘지금의’ → 지난 달, 당 공장은 아음을 틈타 오물을 다량 배출하여~
- c. 매(每): ‘하나하나의 모든’, ‘각각의’ → 매 회계 년도, 매 경기

⁸ 홍경란. 1996. 한자어 접두파생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pp. 19-20.

⁹ 국립국어연구원. 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p. 53.

d. 별(別): ‘보통과 다르게 두드러지거나 특별한’ → 둘은 별 사이가 아니다.

별 뽀족한 방법이 없다.

e. 순(純):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여 순수하고 온전한’ → 순 살코기, 순 한국식

f. 타(他): ‘다른’ → 타 업소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같은 형식의 접두사라 하더라도 의미가 다르면 관형사와 분리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자어 ‘본(本)’은 접두사로도 쓰이고 관형사로도 쓰인다. 즉 ‘바탕이 되는’이라는 뜻의 접두사로 사용되어 ‘본계약/본회의/본뜻/본고장/본서방’과 같은 단어를 생성한다. 한편 ‘本’이 관형사로 사용될 때는 어떤 대상이 말하는 이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이며 ‘본 협회, 본 법정, 본 연구원, 본 사건’ 등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보면 접두사는 어기와 분리되지 않으므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반면 관형사로 사용된 한자어는 어기와 분리해 표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의미상 접두사는 뒤에 나오는 어기를 크게 제약하여 접두사와 어기의 의존도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관형사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한자어 접미사를 살펴본다면 한자어 접미사가 단어 생성에 끼치는 영향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¹⁰ 본고는 어휘를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 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접두사 목록에 《표준국어대사전》에 관형사로 등재된 것도 포함하였다. 대신 관형사로 등재된 한자 앞에는 ※표시를 별도로 해 두었다.

¹¹ 본고 집필시에는 반영하지 못했으나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을 위한 한자어 접두사 선정시 국립국어원에서 선정한 한국어 교육 어휘나 토픽 어휘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를 참고하여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줄고를 읽고 이와 같은 조언을 해 준 김정아 선생에게 감사드린다.

¹²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자어에만 붙는 접두사가 약 53%로 가장 많고, 그다음 30%는 한자어와 고유어에 붙고, 나머지 17%는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에 두루 붙는 한자어 접두사가 있다(홍경란, 1996. 앞의 논문. pp. 54-59).

4. 한자어 접두사의 종류¹⁰

한자어 접두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한자어 접두사를 한자 자체의 의미를 고려하여 그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학자마다 접두사의 의미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는데, 지금까지 20개가 넘는 의미로 분류하여 제시한 연구서들이 있지만 이는 모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생산성이 높고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어 접두사를 중심으로 약 9가지의 의미로 나누어 분류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¹¹

한편, 한자어 접두사를 분류하는 다른 방법은 결합 방식에 의한 분류로, 한자어 접두사가 한자어에만 붙는 경우, 한자어와 고유어에 두루 붙는 경우, 한자어와 외래어에만 붙는 경우, 세 경우에 두루 붙는 경우가 있다.¹² 하지만 본고는 한국어 어휘 학습 신장을 위한 한자 접두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므로 전자를 중심으로 한자어 접두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어기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어기의 내용과 다른 경우의 것

- a) 비(非): ‘아님’ → 비공식, 비무장, 비민주적
- b) 무(無): ‘그것이 없음’ → 무감각, 무자비, 무질서, 무비판
- c) 부(不) / 불(不): ‘아님’, ‘아니함’, ‘어긋남’ → 불공평, 불합리, 불성실, 불안전 /
부도덕, 부정확, 부자유
- d) 미(未): ‘그것이 아직 아님’ 또는 ‘그것이 아직 되지 않은’ → 미개척, 미성년, 미완성
- e) 반(反)¹³: ‘반대되는’ → 반비례, 반작용, 반독재, 반체제
- f) 몰(沒): ‘그것이 전혀 없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몰상식, 몰염치, 몰이해, 몰인정, 몰지각
- g) 탈(脫): ‘그것을 벗어남’ → 탈공업 사회, 탈냉전, 탈대중화

¹³ ‘反’과 함께 ‘親’도 가르치면 효율적일 것이라 본다. 이 접두사는 친인적 관계를 표시하는 접두사로도 사용되지만 ‘그것에 찬성하는’ 또는 ‘그것을 돕는’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예) 친미, 친러, 친유럽, 친혁명 세력.

4.2. 인척 관계와 연관된 것

- a) 생(生): ‘직접적인 혈연관계’ → 생부모, 생어머니, 생아버지
- b) 친(親): ‘부족 혈족 관계인’ → 친삼촌, 친손녀, 친할머니 /
‘혈연관계로 맺어진’ → 친부모, 친아들, 친형제
- c) 외(外): ‘모계 혈족 관계인’ → 외삼촌, 외손녀, 외할머니
- d) 양(養):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닌’ → 양부모, 양아들, 양딸
- e) 왕(王): ‘할아버지뻘 되는’ → 왕고모, 왕고모부, 왕부모
- f) 시(媳): ‘남편의’ → 시댁, 시부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 g) 종(從): ‘오촌’ 또는 ‘사촌’ → 종고모, 종숙모, 종형제
- h) 당(堂): ‘오촌’ 또는 ‘사촌’ → 당고모, 당숙모, 당질부
- i) 서(庶): ‘본처가 아닌’ → 서자, 서모, 서조모, 서삼촌, 서자녀

4.3. ‘크기’ 혹은 ‘무게’, ‘강도’와 관계된 것

- a) 대(大): ‘큰, 위대한, 훌륭한, 범위가 넓은’ → 대가족, 대보름, 대학교, 대성공
- b) 소(小): ‘작은’ → 소강당, 소규모, 소극장
- c) 중(重): ‘무거운’ → 중공업, 중금속, 중장비; ‘심한’ → 중노동, 중환자
- d) 반(半): ‘절반 정도’ → 반팔, 반자동, 반가공; ‘거의 비슷한’
→ 반나체, 반노예, 반죽음
- e) 왕(王): ‘보다 큰 종류’ → 왕개미, 왕계; ‘매우 큰’ 또는 ‘매우 굵은’
→ 왕소금, 왕모래; ‘매우 심한’ → 왕가뭄, 왕고집
- f) 고(高): ‘높은’ 또는 ‘훌륭한’ → 고혈압, 고층, 고학력, 고품질

- g) 저(低): ‘낮은’ → 저혈압, 저소득, 저학년
- h) 장(長): ‘긴’ 또는 ‘오랜’ → 장거리, 장기간, 장모음
- i) 강(強): ‘매우 센’ 또는 ‘호된’ → 강추위, 강타자, 강염기
- j) 약(弱): ‘매우 힘이 없는’ 또는 ‘세력이 약한’ → 약염기, 약산성
- k) 과(過): ‘지나친’ → 과보호, 과소비, 과염소산
- l) 급(急): ‘갑작스러운’ → 급정거, 급상승; ‘매우 급한’, ‘매운 심한’
→ 급경사, 급행군, 급선무
- m) 경(輕): ‘가벼운’ → 경공업, 경금속, 경노동; ‘간단한’
→ 경양식(輕洋食), 경무장(輕武裝)
- n) 초(超): ‘어떤 범위를 선’, ‘정도가 심한’ → 초강대국, 초음속, 초만원
- o) 맹(猛): ‘정도가 매우 심한’ → 맹공격, 맹혼련, 맹독성
- p) 진(津): (음식이나 색깔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매우 진한’
→ 진국, 진간장, 진보라
- q) 연(軟): ‘열은’ 또는 ‘얇은’ → 연갈색, 연노랑, 연보라/연노랗다, 연붉다, 연푸르다;
‘부드러운’ 또는 ‘무른’ → 연감, 연목재, 연착륙

4.4. ‘서열, 차례’와 관계된 것

- a) 정(正): ‘주된 품계임을 나타냄’ → 정일품, 정이품
- b) 부(副): ‘머금가는’ → 부반장, 부사장, 부사수; ‘부차적인’ → 부산물, 부수입
- c) 평(平): ‘보통의’ → 평사원, 평신도, 평교사; ‘평평한’ → 평지대, 평삽
- d) 차(次): ‘다음가는’ → 차선책, 차기, 차세대, 차석, 차남, 차상위 계층
- e) 준(準): ‘구실이나 자격이 그 명사에는 못 미치나 그에 비길 만한’
→ 준결승, 준우승, 준회원, 준교사
- f) 제(第): (한자어 수사 앞에 붙어)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 → 제일, 제이, 제삼
- g) 최(最): ‘가장, 제일’ → 최고위, 최우수, 최전방, 최첨단
- h) 대(對): ‘그것을 상대로 한’, ‘그것에 대항하는’ → 대국민 사과문, 대북한 전략

4.5. 수와 관계된 것

- a) 다(多): ‘여러’ 또는 ‘많은’ → 다용도, 다목적, 다방면
- b) *양(兩): ‘두 쪽 모두’ → 양 팔, 양 다리
- c) 연(連): (횃수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이어져 계속된’ → 연이틀,
연분수, 연비례, 연장군; (몇몇 동사 또는 부사 ‘거푸’ 앞에 붙어) ‘반복하여

계속 → 연거푸, 연이어, 연달다, 연잇다

- d) 재(再): ‘두 번째’ 또는 ‘다시 하는’ → 재교육, 재판성, 재시험, 재작년
- e) 단(單): ‘하나로 된’ 또는 ‘혼자인’ → 단벌, 단세포, 단신, 단모음
- f) 복(複): ‘단일하지 않은’ 또는 ‘겹친’ → 복자음, 복수
- g) 독(獨): ‘한 사람의’ 또는 ‘혼자 사용하는’ → 독방, 독사진, 독무대
- h) *각(各): ‘날날의’ → 각 가정, 각 개인, 각 학교, 각 지방
- i) *매(每): ‘하나하나의 모든’, ‘각각의’ → 매 회계 년도, 매 경기
- j) *전(全): ‘모든’, ‘전체’ (관형사) → 전 국민, 전 세계, 전 대원
- k) 연(延): ‘어떤 일에 관련된 인원이나 시간, 금액 따위를 모두 다 합친’
→ 연건평, 연인원
- l) *제(諸): ‘여러’ → 제 문제, 제 단체, 제 비용
- m) 총(總):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를 합한’ → 총감독, 총결산, 총공격
- n) 범(汎): ‘그것을 모두 아우르는’ → 범태평양, 범세계적, 범국민적

4.6. 오래되거나 새로운 것, 시간과 관계된 것

- a) 고(古): ‘오래된’ 또는 ‘낡은’ → 고가구, 고서적, 고철
- b) 신(新): ‘새로운’ → 신세대, 신기록, 신세계, 신상품
- c) 구(舊): ‘묵은’, ‘낡은’ → 구시가, 구세대, 구제도, 구닥다리
- d) 선(先): ‘먼저’, ‘앞선’ → 선보름, 선이자; ‘이미 죽은’ → 선대왕, 선대인
- e) 후(後): ‘뒤’, ‘다음’ → 후더침, 후살이, 후서방
- f) 전(前): ‘이전’, ‘앞’ → 전반기, 전반전
- g) 금(今): → 금일, 금년도, 금세기
- h) 초(初): ‘처음’, ‘초기’ → 초봄, 초여름
- j) *현(現): ‘현재의’ 또는 ‘지금의’ → 현 시각, 현 대통령, 현 정권
- k) 노(老): ‘늙은’ 또는 ‘나이가 많은’ → 노총각, 노처녀, 노부부

4.7. ‘재료, 물질’과 관계된 것

- a) 생(生): (음식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익지 아니한’ → 생김치, 생나물, 생쌀;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아니한’ → 생가지, 생나무, 생장작; ‘가공하지 아니한’ → 생가죽, 생맥주, 생모시; (고기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얼리지 아니한’ → 생고기, 생갈치, 생새우
- b) 토(土): ‘흙으로 된’ → 토방, 토담, 토성

- c) 옥(玉): ‘옥색’, ‘옥제’ → 옥재떨이, 옥매트, 옥침대
- d) 건(乾): ‘마른’, ‘말린’ → 건가자미, 건과자, 건바다, 건빵; ‘겉으로만’
→ 건을음, 건주정; ‘근거나 이유 없는’ → 건강짜

4.8. ‘가치’와 관계된 것

- a) 귀(貴): ‘존귀한, 희귀한’, ‘값비싼’ → 귀공자, 귀금속, 귀부인, 귀사, 귀학회
- b) 진(眞): ‘참된’, ‘진짜’ → 진면목, 진범인, 진면모
- c) 실(實): ‘실제의’ → 실수령액, 실거래액, 실시간
- d) 가(假): ‘가짜’, ‘거짓’, ‘임시적인’ → 가건물, 가계약
- e) 객(客): ‘행동이나 말, 생각이 쓸데없거나 싱거운’ → 객소리, 객식구, 객쩍다
- f) 공(空): ‘힘이나 돈이 들지 않은’ → 공돈, 공밥; ‘빈’, ‘효과가 없는’
→ 공수표, 공염불, 공테이프; ‘쓸모없이’ → 공뜨다, 공치다, 공돌다
- g) 잡(雜): ‘여러 가지가 뒤섞인’, ‘자질구레한’ → 잡수입, 잡귀신, 잡상인, 잡꽃;
‘막된’ → 잡놈, 잡녀석

4.9. 방법이나 형식과 관계된 것

- a) 남(男): ‘남자’ → 남학생, 남동생
- b) 여(女): ‘여자’ → 여간첩, 여동생, 여배우
- c) 정(正): ‘바른’, ‘똑바른’ → 정사각형, 정사변형
- d) 내(內): ‘안’ → 내분비, 내출혈, 내과, 내무부
- e) 외(外): ‘밖’, ‘바깥’ → 외분비, 외출혈, 외과, 외무부
- f) 양(洋): ‘서구식의’, ‘외국에서 들어온’ → 양배추, 양담배, 양변기, 양송이
- g) 냉(冷): ‘차가운’ → 냉국, 냉방, 냉찜질, 냉커피
- h) 본(本)¹⁴: ‘바탕이 되는’ → 본계약, 본회의, 본줄기; ‘애초부터 바탕이 되는’
→ ‘본뜻’, ‘본고장’, ‘본서방’
- i) 원(元) / 원(原): ‘본래의’ 또는 ‘바탕이 되는’ → 원그림, 원바다, 원자재, 원저자,
원줄기
- j) 호(胡): ‘중국에서 들어온’ → 호빵, 호주머니, 호콩, 호떡
- k) 왜(倭): ‘일본의’, ‘일본식의’ → 왜간장, 왜모시, 왜무

¹⁴ ‘本’은 관형사로도 쓰이는데, 어떤 대상이 말하는 이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한자어 접두사와 관형사’ 부분 참고.

5. 지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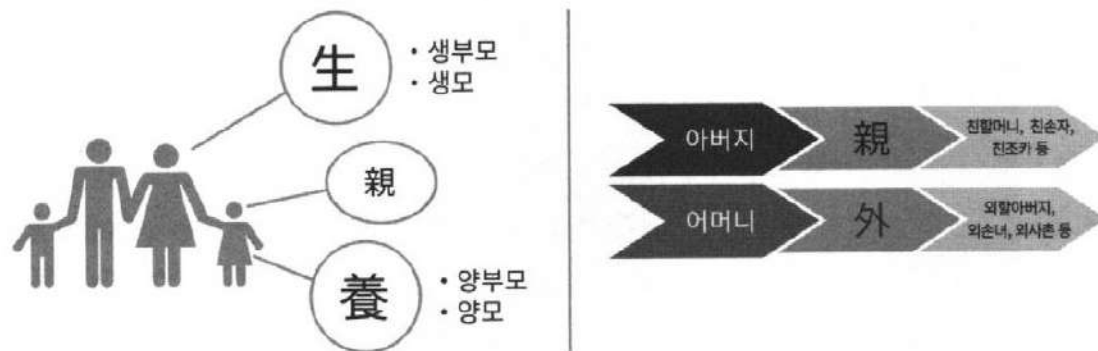
먼저 학습자를 초급반과 고급반으로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다. 초급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접두 파생법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大’나 ‘生’, ‘王’과 같은 비교적 쓰기도 쉽고 생산성이 높은 한자를 중심으로 한자어 접두사에 접근하도록 도와준다. 그런 다음 좀 더 복잡한 한자로 구성된 한자어 접두사를 공부하면 복잡한 한자를 접했을 때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한자어 접두사를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초급 단계에서는 한자어 접두사의 양상 및 특성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어 한자어 접두사를 통한 어휘 공부가 단순 암기식 공부가 되지 않도록 한다. 각 교사가 자의적으로 초급 단계에서 배울 수 있는 한자와 고급 단계에서 배울 수 있는 한자를 구분하고, 유의/반의 관계에 놓인 한자어 접두사를 중심으로 매 수업 시간에 가르칠 한자를 선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제1단계에서는 해당 한자어 접두사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때에는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비슷한 의미나 다른 의미를 가진 한자어 접두사가 있으면 같이 비교·설명하는 것이 각 한자어 접두사가 지닌 어감의 차이도 학습하게 되고, 기계적인 암기 방식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예를 들어, 인척 관계를 나타내는 한자어 접두사 ‘生, 親, 外’를 함께 놓고 비교하여 설명해 준다면 각 한자어 접두사가 인척 관계를 표시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단계에서는 연습 문제를 만들어 학생들이 한자어 접두사를 직접 활용하여 파생어를 만들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제3단계에서는 문장이나 문단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여 문맥 속에서 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1. 1단계: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유사 관계에 놓인 각 한자어 접두사의 뜻 설명¹⁵



¹⁵ 올로모우즈에서 현장 발표를 했을 때 필자의 발표를 경청한 후 벤다이어그램 혹은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교수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해 준 권기현 선생(2022년 현재 프랑스 EMBA Business School 재직)에게 감사드린다. 그래서 본고의 '5. 지도 방안' 부분의 내용은 발표할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인척 관계에서 ‘生’은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의미하여 자기를 직접 낳은 부모를 일컬을 때 사용된다. 그래서 낳아 준 부모와 길러 준 부모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생’과 비슷한 의미의 한자어 접두사는 ‘親’이며, ‘기르다’는 의미의 한자 ‘養’이 쓰여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아닌’ 관계를 가리킨다.

한편 접두사 ‘親’은 접두어 ‘생’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나타내어 ‘친아버지, 친부모’와 같은 파생어를 만들 수도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는 ‘부계 혈족 관계’를 나타내어 아버지 쪽을 가리키는 파생어를 만들며, 반대 의미로 ‘모계 혈족 관계’를 의미하는 ‘外’를 사용하여 어머니 쪽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파생어를 생성할 수 있다.

5.2. 2단계: 연습 문제

연습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만들어 볼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이 처음 접해 보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학습한 한자어 접두사와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고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연습 문제를 만든다. 그래서 파생어뿐 아니라 새로운 단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두 개의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1. 자기를 직접 낳아 준 어머니를 가리켜 (생모)라고 한다.
2. 아버지의 어머니를 가리켜 (친할머니)라고 한다.
3. 어머니의 아버지를 가리켜 (외할아버지)라고 한다.

그런 다음 아래와 같은 연습 문제를 만들어 배운 단어를 복습하고 적합한 파생어를 익히도록 한다.

○ 문제 유형 1: 접두사 ‘外’와 결합할 수 없는 단어를 하나 고르시오.

外	<table style="border: none;"> <tr><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a. 인간</td></tr> <tr><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b. 조부</td></tr> <tr><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c. 숙모</td></tr> <tr><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d. 삼촌</td></tr> <tr><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e. 사촌</td></tr> <tr><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f. 할머니</td></tr> </table>	a. 인간	b. 조부	c. 숙모	d. 삼촌	e. 사촌	f. 할머니
a. 인간							
b. 조부							
c. 숙모							
d. 삼촌							
e. 사촌							
f. 할머니							

○ 문제 유형 2: 파생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1. 生	a. 어머니
2. 親	b. 할아버지
3. 外	c. 부모
4. 養	d. 딸

5.3. 3단계: 문장 연습

관련 파생어가 들어간 문장을 예시로 최소 서너 개 보여 주며 뜻을 이해하고 문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음은 ‘외할아버지’라는 단어와 관련된 예문이다.

1. 어머니는 오랜만에 들르신 외할아버지를 위해 삼계탕을 대접하였다.
2. 외할아버지는 70이 넘었으나, 아직 건강하시다.
3. 그는 마을 어른들께 외할아버지의 함자를 대면서 외손자라고 인사를 드렸다.
4. 외할아버지의 병환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6. 나가며

한국어 어휘의 60% 이상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많은 학술 서적이 한자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학습은 등한시할 수 없는 과정이다. 또한 세기 전환기 이후 일기 시작한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도 많아졌을 뿐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목적과 동기도 다양해졌다. 이와 함께 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 수요도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고급 한국어 어휘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필자는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큰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한자어 접두사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한국어 어휘 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국어 문법에서 얘기하는 접두 파생법에 대해 간략히 얘기한 다음 한자어 접두 파생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에 접두사가 붙을 때 한국어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현상과 원칙이 있는지 이해하는 일은 파생어를 이해하는 기본 지식이기도 하며, 이와 비교해 한자어 접두사가 여기에 결합할 때는 고유어 접두사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면 어휘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한국어 문법에서 한자어 접두사와 관형사로 쓰이는 한자를 혼동하기 쉬운데 어떤 특성을 근거로 이 두 품사를 구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한자어 접두사의 의미를 고려하여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크게 아홉 가지로 나누어 한국어 어휘 생성에 자주 사용되는 한자어 접두사를 분류해 보았다. 접두사 목록은 필자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만든 것으로 각 교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다른 방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척 관계를 나타내는 한자어 접두사 ‘生, 養, 親, 外’를 실례로 한자어 접두사 지도 방안을 3단계로 나누어 모색해 보았다. 먼저, 제1단계에서는 해당 한자어 접두사의 의미를 다른 한자어 접두사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제2단계에서는 연습 문제를 만들어 학생들이 직접 한자어 접두사를 활용하여 파생어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서는 학습한 접두사로 생성된 파생어가 들어 있는 문장이나 문단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여 문맥 속에서 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금까지 필자가 한자어 접두사를 중심으로 고찰해 본 한국어 어휘 교육법, 즉 한자어 접두사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와 관계된 한자를 공부하여 한국어 어휘를 신장하려는 방법은 한자어 접미사 및 고유어 접두사와 접미사에도 적용하여 한국어 어휘 신장 교수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어휘를 접할 때마다 일일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의미를 유추하여 사전적 의미보다는 문맥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 남기심 외 공저. 2019. **새로 쓴 표준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 김애영, 윤지영. 2011. 한국의 한자 교육 현황과 제언. **외국학연구**. 제17집. pp. 31-57.
- 김지형. 2003.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 교수법-비한자권 외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국어문학회**. 27. pp. 343-358.
- 리에카테리나. 2020. 한국어의 한자어 특징과 어휘 교육에 있어서 한자어 학습 원리와 방법. **2020년 EAKLE 워크숍 논문집**.
- 박영의. 1998. 한자 교육과 어휘력 신장의 상관성 분석 연구-초등 읽기 교과서 어휘를 대상으로. **전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박희영. 2008. 한국어로 습득하는 지식이나 정보에 있어서 한자 위상-필른대 동양학과 독일 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 EAKLE 워크숍 논문집**.
- 유홍주. 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자 교육 방안-터키 예르지예스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학회**. N. 84. pp. 183-200.
- 윤재민. 201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한자 교육. **한문교육연구**. Vol. 38. pp. 5-19.
- 이영희. 2008.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장익. 2007. 중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 한자어 교육에 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정서영. 2008. 고급 단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어휘 교수-학습 전략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정승혜. 1997. 外國人을 위한 國語 漢字 教育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정훈. 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 한자 교육 연구. **국어문학회**. N. 47. pp. 241-359.
- 홍경란. 1996. 한자어 접두파생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